

성명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 / 담당: 농지연 정책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전화: 031-292-4911 팩스031-292-4912

농특위원장 인선을 환영하며, 협치 기구로서의 역할 기대

-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정립으로 그 역할에 충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 임 -

- 새정부 출범이후 공식으로 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제58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장태평 신임 위원장이 위촉됐다. 장태평 신임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가청렴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특위 신임위원장으로서는 타부처와의 효율적 소통과 연계를 기대하게 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동안 농특위 위원장 자리가 공식으로 있어 농특위의 존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직속기구들에 대한 통폐합이 단행됐지만 농특위는 유지되었고 늦게나마 위원장 자리도 선임되었다. 한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농특위가 위원장 선임을 계기로 산적해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현장이 농특위에 바라는 것은 농업·농촌 정책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서 국민적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 내 주는 것이다. 과거 전정부 농특위에서 역할 부재의 비판을 받았던 것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을 논의의 자리로 불러내지 못했고, 농업인들과의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 농특위는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관계부처와 합의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위상정립을 위해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신임 위원장이 조만간 농촌지도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리라 기대하며, 대통령 직속 협치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5일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